

2. 마지막 일들 - 8.

시대의 징조들

(SIGNS OF THE TIMES)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막 13:28-29)

* * *

1.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과 선은 반대 개념이다. ‘선’을 대표하는 것이 나눔이라면, 악을 대표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데서 나오지만, 이기심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탐욕에서 나온다. 악한 세대라 함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악’은 음란함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사탄이 제시한 거짓을 더 신뢰하여 악으로 달려갔는데, 이 악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버리고 사탄과 한 짝이 된 음행이었다.

죄의 형벌은 사람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었다. 땅이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아 운택함을 상실했다. 기경하지 않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 인간 스스로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찾아온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탐욕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었고, 일상은 뒤틀리고 망가져서 염려의 온상이 되고 말았을 때, 사람에게 강하게 생겨난 욕구가 ‘표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사람이 표적을 바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상의 불안한 현실을,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느껴보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문명이나 학식의 발달과 무관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일상의 현실보다 표적을 쫓는 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표적에 대한 기대감이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로또 당첨에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서, 투자종목이 연속 상한가를 치는 일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대박’이라는 말이 표적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다. 심지어 영화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슈퍼 히어로들을 영상에 등장시켜 표적에 대한 인간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이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모든 시대, 전 인류에게 통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실을 헤쳐 나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현실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엡 4:17-24 _____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요 20:30),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는 하나도 응해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마 16:4).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공생애 사역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까지도 행하셨다. 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입증해 보이신다든지,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채워주신다든지, 그들의 현실적 염려를 안정시켜 주시려는 의도로는 일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 바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알아차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구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자 끝내는 예수님을 죽여서 그가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만천하에 보이고자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을 통해 자신이 영원한 ‘참 표적’임을 세상 앞에 나타내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동안 죽어 있던 요나가 살아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명의 표적이 되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모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으므로 자신이 영원히 살아 있는 참 표적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 Q. 현실 앞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를 기대하고 있나? 내가 표적을 쫓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요 20:30-31 _____

* * *

2. 하나님 백성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현실에 없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이미 있는 시대의 징조’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언급하셨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마 24:8)라고 하셨다.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원어의 구체적 의미는 ‘해산의 고통(birth pains, ESV)’이다. 즉, 예수님은 세상 끝의 징조들이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길어지듯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현상이 세상 끝이 가까워올수록 더 잦아지고 길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주후 70 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완전히 파괴한 것은 “해산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고, 마지막 때 찾아올 세상 끝 날의 일을 예표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 민족은 기나긴 고통의 세월 속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힘을 당해 왔다(눅 21:24).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 시기가 차면 우둔해졌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충만한 수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롬 11:25-26).

시오니즘을 믿는 유대인들이 1948 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은 것은 시대의 징조였다. 이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벌어지는 국제정세도 하나님께서 시대에 보이시는 징조들이다. 특히 2000 년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숫자가 미국과 이스라엘 본토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상 끝의 다른 징조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주목해야 한다. 세상 끝에는 전인류의 배교가 있을 것이고, 세상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한 인물이 출현할 것이며, 매머시시스템을 통한 우상의 세상 통치가 있을 것이다(살후 2:3-4; 계 13 장). 주후 70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를 예표한 사건이었기에 세상 끝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대규모로 벌어질 것이다(눅 21:20). 해산의 고통 막바지에 하늘에서는 일월 성신의 징조와 땅에서는 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할 정도의 우주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눅 21:25-26). 그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다.

눅 21:20-28 _____

Q. 나는 어떤 징조를 통해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징조가 느껴질 때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눅 12:54-59 _____

* * *

3. 세상 끝 날에는 일상을 이어 가기보다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을 파괴하는 여러 큰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수난을 겪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핍박을 겪을 것을 예고하셨다. 하지만 주님이 그 핍박의 현장에서 구원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에 미리 벌어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셨다(눅 21:14). 소수의 성도는 순교를 당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눅 21:18).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대처법은 오직 주의 약속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다.

세상 끝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이어져 나타나 강도가 세지고 잦아질 때는 더 이상 일상의 인내 만이 대처법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시작되기 직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긴박하게 산으로 도망했듯이, 일월 성신의 징조와 땅의 혼란이 벌어질 때는 일상으로 돌아갈 일이 더 이상 없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 때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일 외에 어떤 다른 일도 우선이 될 수 없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에(살전 5:4), 우리는 미리 그 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주님은 세 가지로 그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셨다. 첫째는 소유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삶을 가볍게 해야 하고, 셋째는 아무 준비없이 허둥지둥 맞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마 24:16-20). 세상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을 당해 하늘과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깨어 이 때를 미리 준비한 백성들은 환난을 피할 것이고(계 3:10), 그렇지 못하여도 주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그들이 겪을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어 모두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마 24:22).

막 13:14-20 _____

Q.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똑같이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막 13: 23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징조들을 가르쳐 주셔서 땅에서의 일상도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삶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삶의 확실성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지혜롭게 분간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주님 오심을 충분히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